

전남 국립의대 후보에 순천대… 교육부 최종 결정만 남았다

전남지역 36년 숙원 ‘국립의대’
지역상생협력회의 열고 뜻 모아
통합특별시의 의료 격차 축소 목표

옛 전남지역 36년 숙원인 국립의과대학·병원 신설 후보대학에 순천대학교가 선정됐다.

지역 정치권은 의대 유치를 놓고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자 지역상생협력회의를 개최했으며, 심사의 공정성과 결과에 수용하기로 합의해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난 30일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30년 개교 예정인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에 순천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순천대가 89.15점, 목포대가 87.85점을 획득해 순천대가 1.3점 높은 점수로 최종 후보대학에 선정됐다. 심사 항목으로는 교육부가 제시한 추진 계획서 항목 중 의대 신설 추진 체계, 의대 교육시설 확보 계획, 교육병원 확보 계획, 의대 교원 확보 계획, 의대 및 교육병원의 역할과 책임 5개 분야로, 세부적으로 의대 교원 확보 계획 평가에서 목포대가 20.55점을 받은 반면 21.72점을 받은 순천대가 1.17점을 앞서 결정적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이 지난 30일 오후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시스

인 승패를 갈랐다.

심사위원들이 도시권에 위치한 순천대의 정주 여건을 무안군에 위치한 목포대보다 높게 평가해 결국 교원 확보가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심사위원은 전남광주를 제외한 서울, 경기, 대전, 충남 등 전국 단위 의료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분야별로는 의대설립, 임상, 기초의학, 공공의료, 병원 운영 등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이날 순천대를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정원 100명 규모의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한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100명을 놓고 전남광주의 순천대, 경북 경국대를 대상으로 최종 의과대학 신설 대학을 결정한다.

민형배 통합시장은 “지금부터는 국립의대를 실제 우리 지역에 세우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립의대 신설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양 대학과 지역 정치권, 시민들이 함께 해달라”고 호소

했다. 이어 “선정되지 않은 대학과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대학병원급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통합특별시에 사는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이 지난 30일 의대 선정이 대학과 지역 간 갈등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지역상생협력회의를 갖고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향후 지역 수용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날 오후 민형배 시장과 송형곤 시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권항엽·김원이 국회의원, 강성휘 목포시장, 손훈모 순천시장, 특별시의원 등이 장흥에서 회동을 갖고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지역상생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공동합의문을 통해 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성사시키고, 이를 지역 화합과 통합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로 만들자 데 뜻을 함께 했다. 또 공정한 심사를 함께 보장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기로 했으며, 심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진주시

지난해 합계출산율 1.005명

경남 진주시는 2025년 합계출산율이 1.005명으로 나타나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진주시의 2025년 합계출산율은 1.00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1.01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전년(0.912명) 대비 0.09명 증가(10.2%)한 것이다. 또한 전국 평균(0.799명)과 경남 평균(0.88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시는 2025년 ▲결혼·임신·출산 ▲양육·교육·돌봄 ▲일자리·소득 ▲생활환경 ▲고령사회 ▲인구변화 대응 등 6개 분야에 315개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해 왔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

울릉군과 관광 활성화 MOU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가 울릉군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 지역 간 민간교류 확대에 나섰다.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울릉군을 방문해 관광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포항시와 울릉군이 지난 2023년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양 지역의 민간 교류를 확대하고 관광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8일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남한권 율릉군수와 황진일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부산시

내달 ‘현금없는 버스’ 시범운영

부산시는 현금 사용 감소 등 대중교통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석 달간 ‘현금 없는 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현금 이용률이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시범 운행할 예정이다. 대상 버스는 총 35개 노선 542대로 전체 시내버스의 약 20% 수준이다.

시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민 불편 사항과 승객의 대체 결제 수단 이용 현황, 운수 종사자·업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 사항을 보완한 뒤 전면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대체 결제수단 마련과 사전 홍보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완도군

지역상품권 최대 20% 할인

전남광주 완도군은 9월 한 달간 추석 민생을 챙기기 위해 완도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보다 5% 상향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류형은 12%에서 17%로 카드·모바일형은 15%에서 20%(할인 금액 사용 후 캐시백 적립)로 할인율을 높였다.

개인별 구매 한도는 기존과 같으며, 지류형과 카드·모바일형을 합산해 월 70만원까지, 지류형은 최대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완도(전남광주)=양수영 기자

사천~진주 정촌 도로 예타 통과

우주항공 교통망 확충 탄력 사천시, 2718억 국비 투입

경남 사천시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천~진주 정촌 간 도로 개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우주항공산업 성장에 필요한 광역 교통망 확충에 탄력이 붙게 됐다.

사천시에 따르면 사천읍 구암리와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를 연결하는 사천~진주 정촌 간 도로 개설사업이 정부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718억원을 투입해 총연장 6.1km, 폭 20m의 왕복 4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다. 특히 이번 예타 통과로 사천시는 대규모 지방비 부담 없이 우주항공청과 항공국가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사천과 진주를 연결하는 기존 국도 3호선은 항공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시설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지만 교통량 증가로 출퇴근 시간대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해 왔다.

새 도로가 개통되면 국도 3호선에 집중된 교통량이 분산돼 사천~진주 간 이동시간 단축과 상습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항공청과 항공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사천시는 물류 이동이 원활해지면서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향후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천(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6 영양고추 H.O.T Festival'

서울 달군 영양고추… 60억 ‘판매고’

페스티벌 방문객 15만명

영양군이 서울 도심에서 영양고추의 수도권 판로 확대 가능성을 확인한다.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6 영양고추 H.O.T Festival'에는 15만명이 찾았고 현장 판매와 TV 홈쇼핑 및 예약주문을 합친 매출은 60억원

으로 집계됐다.

이번 축제는 'K-매운맛의 원조, 영양고추 살아있네'를 주제로 수도권 소비자에게 영양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견고추에서 위생성과 품질을 갖춘 고춧가루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관련 제품의 판매가 크게 늘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포항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도전

내년 10월경 가입 목표

포항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미식 분야 국내 추천도시로 최종 선정돼 2027년 10월경 유네스코 파리 본부의 최종 가입을 목표로 국제심사 준비에 나선다.

포항시는 지난 28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발표한 2027년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 추천도시 심사에서 미식 분야 추천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2024년 4월 미식 분야 국내 예비회원도시 승인 이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창의도시 추진위원회와 행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민과 전문가, 지역사회가 참여해 미식 창의도시의 방향도 구체화해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월리와 함께 경주 보문호서 ‘나이트런’

APEC 정상회의 개최 1주년 기념

경북도와 경주시,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오는 10월 31일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1주년'을 맞아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보문 나이트런 with 월리'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10km 러닝과 5km 슬로우 러닝 등 2개 부문에 총 5,000명 규모로 진행된다. 세계적인 인기 캐릭터 '월리를 찾아라(Where's Wally?)'와 협업해 참가자들이 월리 복장을 하고 보문호 일대를 달리거나 걷는 스포츠관광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보문관광단지 주요 관광시설과 보문호 일대를 지나며 경주의 야경과 호반 풍경을 즐길 수 있다. 현장에

는 월리 캐릭터 포토존과 참여형 이벤트, 푸드트럭 등도 운영한다.

2025 APEC 정상회의의 개최 1주년을 기념해 드론 라이트쇼와 불꽃놀이도 함께 진행된다. 참가자와 관광객들에게 야간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네이버플러스스토어 앱을 통해 진행 중이다. 5km 슬로우 러닝 코스는 예매 첫날 조기 마감됐으며, 경북문화관광공사는 10km 코스도 빠른 속도로 매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보문관광단지의 호반 경관과 관광 인프라에 러닝, 글로벌 캐릭터 IP(지식재산), 야간관광 콘텐츠를 접목해 경주를 대표하는 야간 스포츠관광 콘텐츠로 육성할 방침이다.

/경북=김진곤 기자 jingon@